

## 새 10원 동전, 자판기에 쓸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새 10원 동전이 나온 지 1년여가 되었는데 제대로 된 돈 구실을 못하고 있다. 유통량도 워낙 적은데다 동전크기도 너무 작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 역시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니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매스컴에서는 연이어 이 문제를 보도하며 여론화를 하고 있다. 보도의 핵심은 10원 동전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부분에 맞추어져 있지만 은근

히 새 10원 동전 인식에 무관심한 자동판매기 분야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새 10원 동전을 자동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업계 입장에서 볼 때 구지 10원 동전을 자판기가 인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자판기 내용상품으로 가장 싸다고 할 수 있는 커피도 보통 300원 선에 세팅이 되어있다 보니 1,000원권 지폐나 100원 동전을 사용하면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시각이다. 150원처럼 일부 극소수 50원 단위로 세팅되어 있는 자판기도 기존 1,000원을 사용해도 50원 거스름돈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보니 자판기 산업계는 새 10원 동전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에 거의 무관심하다. 해당 부품메이커도 구지 새 10원 동전을 인식하는 신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찾고 있다. 자판기 메이커도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

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운영업체들도 새 10원 동전이 워낙 유통량이 적은데다가 소비자 불만도 크지 않다보니 기존 코인 메카니즘을 손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너무 앞서가는 매스컴 보도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가 새 10원동전이 없어도 자판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구지 문제를 삼느냐는 시각이다. 너무 언론이 '침소봉대'하며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액면가치가 낮은 화폐라 해도 대응에 전혀 무관심한 산업계도 잘하고 있다곤 할 수 없다. 유통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자판기 분야의 불편 역시 늘어날 것이고, 소비자나 여론이나 무 대응 자판기에 대한 눈길은 점점 안 좋아 질 것이다. 비록 서두를 성질은 아니더라도 차차 대응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새 10원 동전의 사이즈는 불과 18.0mm. 한국은행은



새 10원 동전의 유통량이 적어도 30%~40% 이상 되는 시점에서는 활발한 프로그램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 제조되는 자판기에는 미리미리 새 10원 동전 인식까지 가능한 코인 메카니즘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새 10원 동전을 만들게 된 것은 동구리와 아연가격이 급상승하여 10원 동전의 소재가치가 액면금액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재질은 알루미늄이고 무게는 1.2g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가볍고 작게 만들다보니 이용자들은 낫설고 불편하게 느끼는 게 사실이다.

이런 동전을 자동판매기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새 10원 동전까지 인식이 가능한 코인메카니즘을 개발하는 일이다. 기술개발에 별다른 애로점은 없지만 새 10원 동전이 통과·적재될 수 있도록 기구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일이다. 관련업체에 의하면 센서부분을 조정하면 현재의 코인메카니즘에서도 새 10원 동전을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구부분은 현 메카니즘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식기능만 있고 반환기능을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소비자들은 새 10원 동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새 10원 동전을 넣고 반환기능을 누르면 반환은 되지 않는다.

진짜 새 10원 동전이 자판기에 인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가 큰 불편을 느낀다면 기존 자판기의 코인메카니즘을 프로그램 조정해 사용하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현실점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거의 없다. 그저 무관심이 최선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더욱이 자판기 제조나 운영 할 것 없이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현시점에서는 산업계의 이러한 무대응이 최선인 듯 보이나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회의적이다. 새 10원 동전의 유통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자판기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 역시 커질 것이고, 자판기에 대한 새 10원 동전 대응의 필요성도 커져갈 것이다.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성질은 아니지만 없으면 불편하게 느껴질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작은 소비자 편리라도 배려하고 반영을 하는 것이 선진 자판기 문화이다. 만약 우리보다 자판기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과 같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아마도 우리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자세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아무리 적은 액면가라도 소비자가 사용하는 화폐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국내 자판기 산업계도 소비자 편리와 자판기 문화 향상을 위해 서서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새 10원 동전의 유통량이 적어도 30%~40% 이상 되는 시점에서는 활발한 프로그램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 제조되는 자판기에는 미리미리 새 10원 동전 인식까지 가능한 코인 메카니즘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새 10원 동전이 언제까지 무용지물이 될 수 없듯이 자판기 분야도 언제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작은 것도 중요시하며 치밀히 대응하는 산업계의 자세가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